14011902 문성용

14011915 신예은

15012798 이영현

**무인물류**

<https://www.youtube.com/watch?v=z_R8feyCu-M>

이 영상은 아마존 닷컴 주식회사는 최근15,000대 이상의 로봇을 최근 들여왔다. 이로 인해 유지비용이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빠른 포장이 가능했다고 한다. 영상을 보면 인간이 먼저 주문해둔 물건들을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여 카트에 담아준다.

위 영상은 로봇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대신 해준다. 그 말인즉슨, 인간은 더 이상 현재 들이고 있는 것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단순히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인간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계가 도맡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다면 인간의 삶은 매우 편리해지고 남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권비에 들어갈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장기적인 비용은 줄어 들것으로 전망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들이 태만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항상 공존한다. 또 대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국민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경제에도 분명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2030세계직업연구"를 했는데 인공지능의 다양한 파급효과로 직업세계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전망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사 '왓슨'이 현직전문의사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계속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달한다면 과연 기계는 하지 못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인간이 편리해지기 위해 만든 기계가 나중에는 인간보다 우월하고 인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과연 인간 만을 위한 일자리가 존재할 수나 있을까? 인공지능기계에 이렇게 힘과 시간을 쏟는 것이 먼 미래에는 오히려 인간을 밀어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잇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 인간은 더 여유로워지고 남는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여 더 건설적인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모든 기술 발전에는 양날의 검과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둘 중 무엇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따져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 사회, 세계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